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버스요금면제추진회와 정책 간담회 개최

어르신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버스요금 면제 등 이동권 보장 정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3일(금)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노인버스요금면제추진회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주제로, 버스요금 면제 제안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중앙선대위 상임총괄위원장, 유성엽 노인본부장, 전국노인버스요금면제추진회 김동희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의원), 한상운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 제안을 발표한 전국노인버스요금면제추진회 측은,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과 버스요금 부담을 지적하며, 고령층을 위한 전국 단위의 ‘버스요금 전면 면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이동의 불편과 교통비 부담을 호소하신다. 교통복지의 형평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노인본부장은 “전국노인버스요금면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라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총괄본부장은 “지자체별로 무임승차 제도가 달라 형평성에 대한 어르신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어르신 교통복지가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